

『祇林寺事蹟』의 書誌와 內容 研究

Study on the Bibliography and Contents of the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朴 鎔 辰 (Park, Yong-Ji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
| 2. 祇林寺의 사지 자료 | 3.2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과 「別本祇林寺事蹟」 |
| 2.1 祇林寺 事蹟 | 4. 「祇林寺事蹟」의 체제와 내용 |
| 2.2 重創 및 殿閣 修建記 | 5. 맺음말 |
| 2.3 단월 및 공덕기 | <참고문헌> |
| 2.4 불교신앙과 지역 관련 자료 | |
| 3. 「祇林寺事蹟」의 현황과 書誌 | |

< 초 록 >

본고는 경주 기림사의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3종과 다양하게 전존하는 사지 자료를 분석하여, 祇林寺의 사명 등 창건과 역사의 전반을 재검토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코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祇林寺 寺誌 자료는 1740년에 간행된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1794년에 개간된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別本祇林寺事蹟』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불국사지』에 수록된 종도리 墨書記를 비롯한 殿閣修建記, 단월 및 공덕기, 불교신앙과 지역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기림사의 사지는 1740년에 간행된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의 목판본이 기림사 등 5개 소장처, 필사본이 동국대도서관 등 2개 소장처, 국역 필사본이 기림사에 소장되어 있다. 1794년에 개간된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과 『別本祇林寺事蹟』은 권상로의 『한국사찰진서』에 수록되어 있고, 그 판본이나 저본은 미상이다. 이상의 제본에 대해 그 현황과 서지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祇林寺事蹟』의 체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1740년 간본」, 「별본 사적」, 「1794년 개간본」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사적의 구성은 사명과 입지, 사원의 창건과 구성, 사원 일대 형승, 사원연기, 勝地 五處讚, 後跋, 卷末記 文 및 刊行秩의 전반에 대해 상호 수록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要語: 신라함월산기림사사적, 별본기림사사적, 기림사사적, 기림사, 불국사지

* 能仁大學院大學校 助教授(pyj04667@hanmail.net)

접수일: 2017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0일
서지학연구, 제72집, 169-189,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169]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ree kinds of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of Gyeongju Girimsa temple and various kinds of temple materials. In addition, This study wanted to present basic data for reviewing the history of Girimsa Temple and its histor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The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 compares and reviews the book published in 1740 and 1794 and the *Byulbon Girimsa Sajuk* (別本祇林寺事蹟). In addition, this article reviewed and briefly explained the archival materials such as architectural records and book records in the *Bulguksaji* (佛國寺誌).

The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 are divided into woodblocks (木版本), manuscripts (筆寫本) and Korean translations (國譯本). The woodblocks manuscripts (筆寫本) are kept in Girimsa temple, and Dongguk University Library etc. The Korean translations (國譯本) is in Girimsa temple.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 published in 1794 and *Byulbon Girimsa Sajuk* (別本祇林寺事蹟) are listed in the *Hamguksacha-ljeonseo* (韓國寺刹全書) of Kwon, Sang-Ro, and their editions and the Original Text are unknown.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urrent state of the above books and the content of the bibliographic investigation.

The contents of the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 were divided into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 published in 1740 and 1794, *Byulbon Girimsa Sajuk*. The composition of the above books analyzed the name and the location of the temple, the construction and composition of the temple, the temple scenery, the temple originated narratives, the Hymns on sights of the temple, the postscript, the last colophon.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d the same and different aspects of the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 as a whole and analyzed the related contents.

Key words: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Byulbon Girimsa Sajuk (別本祇林寺事蹟), *Girimsa Sajuk* (祇林寺事蹟),
Girimsa temple(祇林寺), *Bulguksaji* (佛國寺誌)

1. 머리말

경주 祇林寺는 光有聖人의 林井寺가 신라대에 원효에 의해 사명이 祇林寺로 개명된 것으로 선덕여왕 12년(643)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祇林寺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만큼 불상, 전적, 전각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비로자나불의 복장 전적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간행된 것으로 불교서지학적 가치는 크다. 이러한 자료의 성립과 전개에 대한 이헤나 편년은 祇林寺의 사지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에 의할 필요가 있다.

祇林寺의 역사는 「祇林寺事蹟」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1794년의 개간본과 별본 「祇林寺事蹟」이 확인된다.¹⁾ 이 「祇林寺事蹟」에 대해서는 기림사에 소장된 현판 등 29건의 자료들과 함께 영인되어 소개되었고,²⁾ 기타 다수의 자료가 기림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祇林寺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祇林寺와 관련된 조사 보고로는, 1988년에 대적광전의 주존 비로자나불상의 복장 전적 54종에 대한 조사 보고가 이루어졌다.³⁾ 또한, 1997년에는 경주시에서 대적광전을 해체하여 실측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도리의 목서가 발견되면서 모두 9차의 중수가 확인되었다.⁴⁾ 2007년에는 전국의 사찰문화재 일체 조사의 일환으로 기림사의 유물 전반에 대한 조사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보고에서는 비로자나불 복장 전적 일괄 142건, 불·보살상 46건, 불화 29건, 전적 29건, 현판 32건 등이 도록과 자료집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수장고의 미정리 자료 등은 반영되지 않아 향후 추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⁵⁾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988년 비로자나불 복장 전적의 조사 보고 이후 관련 전적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⁶⁾ 1998년에는 祇林寺의 역사와 가람 구조, 목조 건축, 불상, 탕화 등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⁷⁾ 최근 2017년 10월 27일에는 경북대학교 BK21플러스 사업팀에서 기림사 소장 문헌 분석 및 角筆·口訣자료의 기록문화에 대한 기획 학술세미나가 열렸으며,⁸⁾ 역사, 서지, 국문학, 불교학 등의 전반에 걸친 연구가 수행되어 기존의 연구를 보다 확장하였다.

1) 權相老, 『退耕堂全書』 권2 (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8).

2) 『佛國寺誌(外)』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3) 文化財管理局, 『祇林寺비로자나불복장전적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8).

4) 慶州市, 『祇林寺 大寂光殿 解體實測調查報告書』 (경주: 경주시, 1997).

5)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체조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서울: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6) 朴相國, “祇林寺 毘盧舍那佛像 腹藏經典에 대하여(상),” 『서지학보』 제1집(대구: 한국서지학회, 1990.6). 한편 南權熙, 『高麗時代記錄文化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에서는 祇林寺의 비로자나불 복장 전적 및 관련 추가 자료들이 다수 확인된다.

7) 문명대, “毘盧遮那三身佛圖像의 形式과 祇林寺 三身佛像 및 佛畫의 연구,” 『불교미술』 제15호(서울: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8) 이외 김정기, “祇林寺 木造 建築의 特徵”; 홍윤식, “祇林寺의 伽藍構造와 그 意味”; 김정희, “祇林寺 十王圖考”; 한상길, “祇林寺의 歷史와 思想”이 수록되었다.

8)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21플러스 전통기록물 분석·활용·아카이빙 전문가 양성사업팀, 『기림사 소장 文獻 분석 및 角筆·口訣자료의 기록문화』 자료집 (대구: 경북대학교, 2017.10).

한편, 기존의 연구는 祇林寺의 사지나 소장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니었다. 이는 祇林寺 소장 자료의 조사 및 열람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소장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부족했던 3본 사적과 사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祇林寺의 사명 등 창건과 역사의 전반을 재검토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코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경주 祇林寺의 위상이나 역사, 더 나아가 소장 문화재의 이해나 편년 등에 대해 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추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 祇林寺의 사지 자료

祇林寺가 신라 선덕여왕대인 643년에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사찰의 창건과 전개를 알 수 있는 현전하는 사료의 대부분은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료에 대한 내·외적 비판을 통한 검토가 요구된다. 祇林寺 寺誌인 현전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을 비롯한 祇林寺의 주요 자료에 대해 그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祇林寺 事蹟

- ① 1740년,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 ② 1794년,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 ③ 미상, 別本祇林寺事蹟
- ④ 조선후기, 실나함월산지림사스적

① 1740년 간본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은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중앙도서관, 목담유물자료관, 영남대도서관의 간행본과 계명대도서관, 동국대도서관 등의 필사본이 전한다. 이 간본은 乾隆五年庚申(1740)에 간행되었으며, 발문에 “歲崇禎紀元後黃狗(1646)大簇上浣沙門方訶婆給窮食東賓聞份兼跋”이라 하여, 東賓 聞份이 사적 및 발문을 썼다. 현전 간본은 모두 1740년간본에 해당하며, 목담유물자료관본의 인쇄 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책판 11매가 유물전시관에 전존한다.⁹⁾ 이 사적은 창건의 역사, 전각, 창건설화, 발문, 간행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서술한다. 한편 이 사적의 일부를 발췌한 『釋迦如來事蹟』이 동국대도서관에 필사본으로 전하며, 이는 『佛國寺誌』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② 1794년,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은 당시 주지 理寬이 발의하여 改刊되었지만 현전본은 확인

9) 權相老,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退耕堂全書』 권2 (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8), 296-299.

되지 않고, 권상로의 『한국사찰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③ 『別本祇林寺事蹟』은 권상로의 『한국사찰전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1740년 간본 사적과 설화의 대강은 같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별본은 花田修理, 圓光夫人으로 내용이 대체되는 한편 안락국의 고난과 부친 사라수왕 상봉 과정이 서로 다르게 묘사되었고, 왕생계와 극락왕생 등이 생략되었다. 또한, 일부는 범어를 제시하고 하부에 번역된 한어를 병기한 점이 특징적이다.¹⁰⁾

④ 조선후기, 실나함월산지림사스적은 현재 기림사 정보박물관에 전존한다. 이 사적은 1740년 간본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을 한글 고체로 번역한 것으로, 월인천강곡 이하의 내용이 누락되는 등 완역이 아니고, 또한 오역이 많아 사지 사료적 가치는 다소 부족하다. 이 사적의 필사는 ‘기사삼월 이십팔일종 책주인 계미생 이씨보덕심’이라 하여, 이씨가 기사년 3월 28일에 필사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계미생은 1823년이나 1883년에 해당하고, 필사기의 기사년은 1869년 또는 1929년이다. 이상 사적의 서지사항 등 상세내용은 후술한다.

2.2 重創 및 殿閣 修建記

重創記

- ① 1705년 慧聰, 祇林寺重創記
- ② 1864년, 祇林寺重建記
- ③ 1900년, 祇林寺重修記

殿閣 修建記

- ① 1629년, 1755년, 1785년, 1978년 대적광전(대웅전) 종도리 墨書記 4중
- ② 1790년, 慶州府祇林寺大寂光殿及諸法堂丹牘記
- ③ 1836년, 慶州府東嶺含月山祇林寺南寂庵重創記
- ④ 1847년, 祇林寺大鐘記
- ⑤ 1851년, 南寂庵改瓦記
- ⑥ 1890년, 光緒十六年庚寅五月日祇林寺揭板
- ⑦ 1900년, 含月山祇林寺南寂庵後佛幀及翻瓦重修記
- ⑧ 1916년, 慶州郡祇林寺藥師殿改金佛事記
- ⑨ 1926년, 慶北慶州郡陽北面大本山祇林寺南寂庵重修記

기림사의 중창과 중건기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3건이 주목된다. ① 『祇林寺重創記』는 조선후

10) 權相老(1998), 300-306.

기 祇林寺의 역사와 전개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자료이며, 현재 祇林寺에 현판의 실물이 전존한다. 1705년에 혜충이 기록한 것으로 간단한 현판의 기문이다. 그 내용은 梵摩羅國 光有가 林井寺를 창건하고 원효가 전각을 중창하여 사명을 祇林寺로 改號하였으며, 1578년에 竺禪의 중창으로부터 1705년까지 중건 및 중수가 이루어진 사실의 기록이다.¹¹⁾

② 祇林寺重建記는 1862년 화재로 요사채가 소실되자 경주 부윤 宋廷和와 최남곤 등의 시주로 중건되었으며, 1864년에 그 전말을 개관한 것이다.

③ 祇林寺重修記는 大韓 光武 4년(1900)에 孫永耆가 기록한 것으로 1836년 수재를 입자 1839년에 경주부윤 俞章煥이 승증을 안집시킨 사실과 1899년에 당우를 중수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중수기는 1900년에 작성되었지만 1836년 이후 영봉-서파-철허-회은-도하로 이어지는 祇林寺 상계 전법 계보를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에 해당한다. 기문의 뒤에 수록된 시주질은 祇林寺 주석 승려나 단월 등 사세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위의 殿閣 修建記는 대부분 『불국사지』에 수록되어 있고 주로 揭板을 위해 목판에 새겨진 자료들이며, 종도리의 목서기나 상량문도 전각의 수리나 건축을 알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이 가운데 南寂庵의 사료는 祇林寺의 부속 암자의 운영을 전하는 자료로 본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 함께 검토키로 한다. 위의 ① 대적광전 종도리 墨書記 4종과 ② 慶州府祇林寺大寂光殿及諸法堂丹牘記는 대적광전의 중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대적광전 목서기 4종은 1629년, 1755년, 1785년, 1978년에 중수한 내용을 종도리에 목서한 것으로, 『祇林寺 大寂光殿 解體實測調查報告書』에 수록되어 있다.¹²⁾ 이는 崇禎 2년(1629), 건륭 20년(1755), 건륭 50년(1785), 서기 1978년에 목서 기문으로 대응전(대적광전)의 중수 연혁과 시주 관료나 승려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에 해당한다. 특히 18세기의 祇林寺의 주석 승려나 유관 사찰을 통하여 당시 사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790년의 ② 慶州府祇林寺大寂光殿及諸法堂丹牘記가 주목된다.¹³⁾ 위의 대적광전 종도리 목서와 함께 대적광전 및 여러 법당의 중수를 알 수 있으며, 후반부에는 시주질이 있다. 18세기의 대규모 중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서술하는 단월 및 공덕기의 芳緣錄과 功德碑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④ 祇林寺大鐘記는 祇林寺에서 대종을 사들였는데, 사찰의 범종의 기능과 布雲 강백에 의해 모연된 일 등을 1847년에 영봉의 문인인 徹虛가 기록하였다.¹⁴⁾ 또한 ⑥ 光緒十六年庚寅五月日 祇林寺揭板은 1890년에 통도사 비구 文祐의 시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¹⁵⁾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작성된 ⑧ 慶州郡祇林寺藥師殿改金佛事記는 약사전의 개금 불사에 관한 기록이다.¹⁶⁾ 이 기문에는 祇林寺의 본래 사명은 林淨寺로 광유성인이 머물던 곳이며, 신라 선덕

11) 『佛國寺誌(外)』(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161-167.

12) 慶州市, 『祇林寺 大寂光殿 解體實測調查報告書』(경주: 경주시, 1997). 68-77.

13) 『佛國寺誌(外)』(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229-233. 목차에서는 1910년으로 기록하였으나 1790년의 오류이다.

14) 『祇林寺大鐘記』, 『佛國寺誌(外)』(1983), 173-180.

15) 『光緒十六年庚寅五月日祇林寺揭板』, 『佛國寺誌(外)』(1983), 190.

16) 『慶州郡祇林寺藥師殿改金佛事記』, 『佛國寺誌(外)』(1983), 235-242.

왕시에 원효조사가 중창하면서 祇林寺로 고쳤고, 1578년 축선장로가 修棚, 1654년 坦輝장로가 약사 법당을 중수, 1668년 雙聖장로 금당 장식 및 三佛閣 조성, 1785년 산중 합력으로 대적광전, 각 법당을 중수한 내용을 이전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기타, 1841년의 祇林寺重修上梁文, 1847년의 舍月山祇林寺說玄堂重修獻番佛器等常住汴物記, 1847년 추정의 鐘誦, 1922년 祇林寺冥府殿地藏菩薩造成鍍金記 등이 祇林寺에 보관 중이며 관련 내용은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⁷⁾

다음은 부속 암자인 南寂庵의 중수 관련 기록으로 1836년의 ③ 慶州府東嶺舍月山祇林寺南寂庵重創記를 비롯 1851년의 ⑤ 南寂庵改瓦記, 1900년의 ⑦ 후불탱 및 번와중수기, 1926년의 ⑨ 중수기를 들 수 있다.¹⁸⁾ 남적암은 1596년에 시창되어 1926년까지 이어졌는데, 祇林寺의 시대별 전개와 함께 관련 부분에서 검토키로 한다.

2.3 단월 및 공덕기

- ① 1785년, 嶺左慶州府東嶺舍月山大禪宗祇林寺大寂光殿藥師殿五百聖衆殿冥府殿鐘閣重創施主芳緣錄(현판)
- ② 1786년, 東溟堂說初功德碑
- ③ 1786년, 金府尹功德碑
- ④ 1802년, 嶺左慶州大都護府東嶺舍月山祇林寺冥府殿丹腹記
- ⑤ 1835년, 活峰大師像贊
- ⑥ 1841년, 府尹兪公願生碑
- ⑦ 1848년, 兪知崔公側室月城李氏有功錄
- ⑧ 1892년, 府尹盧泳敬頌德碑
- ⑨ 1900년, 祇林寺重修緣化秩/祇林寺重修檀越錄
- ⑩ 1903년, 祇林寺七星殿創建檀越記
- ⑪ 1903년, 七星殿始創施主記/七星殿始創施主秩
- ⑫ 1903년, 祇林寺七星殿創建主樹功記
- ⑬ 1926년, 具氏夫人信功記文
- ⑭ 1927년, 南寂庵引水施主記
- ⑮ 1938년, 祇林寺庚子中有功錄記

祇林寺의 제불사와 관련한 시주 또는 공덕자에 대한 기록은 목비 그리고 목판으로 다수 전존한다.

17) 한상길, “祇林寺의 歷史와 思想,” 『佛敎美術』(서울: 東國大學校博物館, 1998), 8쪽에 현판명이 제시되어 있지만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鐘誦은 『佛國寺誌(外)』, 316-319.

18) 『佛國寺誌(外)』(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위의 남적암 관련 기록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우선 18세기의 대규모 중수와 관련하여 그 단월과 공덕자에 대한 것으로 1785년의 ① 嶺左慶州府東嶺含月山大禪宗祇林寺大寂光殿藥師殿五百聖衆殿冥府殿鐘閣重創施主芳緣錄, 1786년의 ② 東溟堂說初功德碑, 1786년의 ③ 金府尹功德碑를 들 수 있다. ①의 重創施主芳緣錄은 대적광전 등을 중창하면서 그 전말과 시주와 유공자에 대해 列名한 것으로, 上之九季乙巳(1785)五月日 즉 정조 9년(1785)에 月城後人 崔進이 쓴 諸殿閣 重創 施主 芳緣錄이다.¹⁹⁾ 이 기문은 1행 14-15자에 목판 음각이며 현판용으로 제작되었다. 전반부는 중창의 유공자를 기록하였고, 이어 공덕주와 중창 관계자를 기록하였다. 그 내용은 대공덕주 경주부윤 김광목의 시주를 비롯한 도화주, 차회주, 시주질, 연화질(대웅전 편수질 도목수, 나한전편수, 진남루편수, 목수), 공양주, 발원대공덕주, 대도감, 소도감, 내도감, 본사산중대덕, 철물도감, 시서기, 전서기, 境內役軍秩, 나한상 및 시왕상 중수 등으로 인명 및 범명을 함께 기록하였다. 이 방연록은 경주부윤 김광목을 비롯 당시 祇林寺의 주석 승려를 찾을 수 있고, 祇林寺와 유관 사찰이나 시주자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②의 東溟堂 說初는 6만 량을 시주하였고, 그 공덕을 기리는 비가 만들어졌고, ③ 金府尹功德碑는 1785년 중수를 도와준 경주부윤 김광목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목비이며, 祇林寺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④는 1802년에 명부전을 단청한 기록이다.

다음의 ⑥ 1841년, 府尹俞公願生碑는 1836년에 祇林寺가 수재를 당하자 당시 경주부윤 俞章煥이 사찰을 안집한 데 대해 원생비를 건립하였고, ⑦ 1848년, 僉知崔公側室月城李氏有功錄은 첨지 최남곤의 부인이 시주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최남곤은 1862년 요사채 화재시 시주가 되어 재건에 조력하였다. ⑨ 1900년, 祇林寺重修緣化秩 및 檀越錄은 1900년의 祇林寺 重修와 관련이 있고, 이 중수의 시주 등 유공자에 대한 연화질 및 단월록이다. ⑧1892년, 府尹盧泳敬頌德碑는 경주부윤 노영경에 대한 송덕비이며 별도의 기문은 없다.

祇林寺의 칠성전은 1903년에 창건되었는데, 이에 대한 단월이나 창건주에 대한 내용은, ⑩ 1903년, 祇林寺七星殿創建檀越記, ⑪ 1903년, 七星殿施主秩, ⑫ 1903년, 祇林寺七星殿創建主樹功記가 참고되며, 이 칠성각은 현재의 삼성각으로 변천했으며 그 시기는 분명치 않다.

기타 1857년 慶州府東嶺含月山祇林寺聖壽殿重修施主有功記, 1926년 南寂庵鐘施主芳銜錄, 1926년 本庵[磨旨得]施主記, 1929년 南寂庵卓子施主, 祇林寺七星殿幀畫施主, 시대 미상의 契房秩 및 施主秩이 확인된다. 향후 사지의 편찬을 통하여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

2.4 불교신앙과 지역 관련 자료

- ① 1719년慶州府東嶺含月山祇林寺大雄殿毘盧遮那如來重修鍍金畫師檀越與比丘及引勸諸師等發願文²⁰⁾

19) 『佛國寺誌(外)』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211-223. 목차에서는 1905년으로 기록하였으나 1785년의 오류이다.

- ② 1719년, 慶州府東舍月山祇林寺大雄殿西方極樂世界阿彌陀如來重修改金化主及引勸諸師與檀越緣化比丘等發願文
- ③ 1729년, 五百羅漢腹藏發願文
- ④ 1814년, 念佛契大成功碑
- ⑤ 1818년, 祇林寺庚子甲有功錄記
- ⑥ 1828년, 戊午甲成功碑
- ⑦ 1831년, 甲子甲成功碑
- ⑧ 1859년, 完議
- ⑨ 미상, 遊南寂庵記

• 기타 불교신앙과 사원 장엄용 불화류

- 1718년, 祇林寺 大寂光殿 三身佛畫
- 1788년, 祇林寺 大寂光殿 三世佛畫; 1790년 丹腹記
- 1799년, 祇林寺 十王殿 十王幀
- 18세기, 祇林寺 大寂光殿 三藏菩薩圖
- 1909년, 十王殿地藏菩薩造成鍍金施助揭板記唱佻單靈山會

위의 ① 1719년, 毘盧遮那如來重修發願文은 비로자나불을 중수하고 개금 불사를 한 화사와 시주의 발원문에 해당한다.²¹⁾ 이와 함께 ② 1719년의 西方極樂阿彌陀如來重修改金發願文도 확인되는데, 동시에 이루어진 불사로 판단된다. ③ 1729년 五百羅漢腹藏發願文은 2002년 개분불사 중 복장에서 발원문이 나왔다. ④ 1814년, 念佛契大成功碑, ⑤ 1818년, 祇林寺庚子甲有功錄記, ⑥ 1828년, 戊午甲成功碑, ⑦ 1831년, 甲子甲成功碑는 모두 사찰을 중심으로 결성된 계의 성공을 발원한 목비에 해당한다. ④는 김창윤 등이 염불계를 만들어 사찰 중수의 재원으로 활용키 위한 것이었다.²²⁾ ⑤ 1818년, 祇林寺庚子甲有功錄記는 上·下殿의 三寶에 공양키 위해 시주한 공을 기록한 것이다. ⑦의 甲子甲成功碑는 원제명이 ‘甲子甲有功碑銘并序’이며, 10여 명이 재원을 마련한 공을 기록하였다. 말미에는 三綱 등을 기록하였으며, 당시의 사원의 운영이나 주석 승려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현재 사찰계 연구에 일부 활용되었지만, 기림사의 감계에 대한 연구는 보다 추구할 필요가 있다.

⑧의 1859년에 작성된 완의는 기림사의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있는 주요 자료에 해당한다. 이 완의는 경주부의 영부선생안과 호장안의 보장처가 기림사임을 알려 준다.²³⁾ 완의는 조선후기 경주

20)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서울: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316.

21) 祇林寺 홈페이지 연혁 참조(<http://www.kirimsa.net>).

22) 한상길, 『朝鮮後期 寺刹契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49.

23) 『完議』, 『佛國寺誌(外)』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 257-261.

지역과 기림사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상의 자료는 기림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신앙의 전개를 알 수 있고, 또한 사원 장엄용 불화류가 현전하므로 書記의 종합적인 정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3. 「祇林寺事蹟」의 현황과 書誌

기림사의 사지는 간행 이후 이본과 별본이 확인되며, 한편으로는 필사본과 한글 국역본이 다수 전존한다.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3종으로 구분되며, 간본과 필사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기림사 사지의 현황

연번	사지명	관종	전존현황	비고
①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1740년)	목판본	기림사 동국대도서관 목담유물관 영남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	계명대도서관 동국대도서관	2종
		국역필사본	기림사	조선후기
②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1794년)	미상	한국사찰전서	
③	別本祇林寺事蹟(미상)	미상	한국사찰전서	

이상 3종의 사지는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바, 서지사항을 정리한 후, 그 체제와 내용 등을 검토기로 한다.

3.1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3.1.1 목판본

기림사 사적으로 원본의 형태를 갖춘 것은 1740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이하, 「祇林寺事蹟」)으로 현재 그 목판이 기림사 정보박물관에 전존하고 있다. 이 목판본의 전·후쇄본이 동국대도서관 등에서 확인되며, 목담유물관 소장본이 인쇄 선명도 등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사진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검색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상 제본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1740년 간본)
 - 권수제: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 저자사항: 없음
 - 판심제: 事蹟
 - 판종: 목판본
 - 장정: 선장본
 - 장수: 21장
 - 반광: 21.4×17.5cm
 - 변란: 사주단변
 - 행장수: 9行 12字
 - 판구 및 어미: 백구, 상하내향 2엽화문 흑어미



<사진 1> 목담유물자료관 소장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위의 서지사항은 1740년 간본에 공통된 것이며, 소장기관별 전·후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서지사항은 동일하다. 다만 기관별 소장 판본의 전존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요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그 같고 다른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림사 소장본 「祇林寺事蹟」은 표지가 낙장된 가철본으로,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으로 목서되어 있다. 사적의 간기 이후 부분은 「기림사중창기」, 「기림사중건기」, 「김부윤공덕비」 등이 필사되어 있다.

영남대도서관 소장본은 동빈 김상기가 1971년에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책 상태는 글자의 마모가 심하고, 계선이 불명확하며, 표지는 흑판지로 근대 개장본이다.²⁴⁾

동국대도서관본은 근대 개장 표지이며, 제침에는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이라 묵서되어 있다. 부엽에는 「祇林寺事蹟」의 본문 내용이 인출되어 있는 저지를 붙였다. 본문은 제13장이 결장되어 8행 14자의 묵서 필사가 확인되며, 기타본의 내용과 다른 점은 없다.²⁵⁾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조선총독부 구장본으로 추정되며, 원문 화상이 제공된다.²⁶⁾ 표지는 근대 개장이며, 표제는 '祇林寺事蹟'으로 묵서되어 있다. 표제의 '祇'字가 오자이므로 삭선하고 정자인 '祇'字를 묵서하여 교정하였다. 책크기는 27.1×19.7cm이며, 인쇄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목담자료관 소장본은 인쇄 상태가 양호하지만, 표지가 낙장되어 가철된 상태이다. 책크기는 26.7×21.5cm이며, 藏書記로는 권수에 '默潭'의 장서인과 '鞠聲祐'의 스탬프인이 날인되었으며, 뒤표지에 '張賢家也'가 묵서되어 있다.

이외에 「佛國寺誌」에 수록된 영인본 「祇林寺事蹟」은 저본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책크기는 280.0×20.0cm이다.²⁷⁾ 이 자료의 해제는 장충식이 담당하였지만 관련 저본의 서지사항이나 소장 정보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3.1.2 필사본

「祇林寺事蹟」의 필사본은 계명대도서관 2종, 동국대도서관의 1종의 소장본이 확인된다. 계명대도서관 소장본은 1740년 간본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과 동일한 내용이며 가감은 없다. 우선 계명대도서관 소장본 2종에 대한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²⁸⁾

권수제: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저자사항: 없음

판중: 필사본

장정: 선장가철

장수: 11장

책크기: 18.4×16.8cm, 字高: 14.8cm

24) 영남대도서관, 청구기호 '古二-226.911 기립사'.

25) 동국대도서관, 청구기호, 'D218.61 신231c2'.

26)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21-338'. 사진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검색 가능하다.

27) 「佛國寺誌外」(서울: 亞細亞文化史, 1983), 103-144.

28) 계명대도서관, 청구기호 '이 294.369 기립사'. 등록번호: 130016.

행장수: 10行 17-20字 字數不定

판구 및 어미: 없음

필사시기: [조선후기]

이 필사본의 표지서명은 「祇林寺事蹟」이며, 지질은 제9장이 종류가 다른 저지가 사용되었으며, 표지는 지님으로 가철되어 있다. 본문 내에 목서 현토가 있고, 본문 상변에는 글자의 추가 또는 오자를 교정한 목서가 있어, 향후 내용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서의 내용은 「祇林寺事蹟」과 동일하지만, 「勝地 五處讚」에서 천태산에 대한 讚文까지 수록되어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발문이 없다. 「祇林寺事蹟」의 본문 이후에는 「叔師上書」 등 서간문이 4張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책말에는 「丙子年 初夏」가 목서되어 있지만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②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²⁹⁾

권수제: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저자사항: 없음

판종: 필사본

장정: 선장 5針眼

장수: 11장

책크기: 28.2×17.8cm, 字高: 25.5cm

행장수: 10行 22字

판구 및 어미: 없음

필사시기: 1890년(고종 27)

필사기(冊末): 鮮國嶺南左道梁山郡河北面鷲棲山通度寺極樂/
大清光緒拾陸年白虎流大休夏翌日獐于 講會

이 필사본은 표지서명이 「四經合部」로,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에 이어 4경 즉, 「佛說布施經」 2장, 「佛說孝子經」 2장, 「佛說罪福報應經」 3장반, 「佛說須陀拏太子行壇經」 7장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佛說須陀拏太子行壇經」은 동일한 경명이 확인되지 않는데, 「太子須大拏經」이 고려대 장경에 입장되어 있어 향후 관련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서의 내용은 「祇林寺事蹟」의 “按古記 梵摩羅國 林淨寺 光有聖人領五百弟子說……前佛時 伽藍之墟也哉”의 내용만을 조사한 것으로 광유성인과 임정사 관련 내용에 해당한다. 사적과 합부된 4경의 내용의 상관성은 보다 검토될 필요가 있다.

29) 계명대학교서관, 청구기호 '이 294.369 신라함'. 등록번호: 125706.

다음으로, 동국대도서관 소장 필사본의 서지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본의 표지서명은 『新羅 舍月山祇林寺事蹟』이며, 표지는 근대 개장본으로 주요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³⁰⁾

권수제: 釋迦如來事跡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저자사항: 없음

판종: 필사본

장정: 紙捻 가철

장수: 7장

책크기: 18.9×18.8cm, 字高: 16.5cm

행자수: 행자수 不定, 13-14行 17-18字

판구 및 어미: 없음

필사시기: 미상

동국대도서관 소장 필사본의 표지는 갈색보드지로 근대에 개장되었다. 본서는 아세아문화사의 『佛國寺誌外』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³¹⁾ 수록 내용은 1740년 간본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의 내용 가운데 “新羅時節古記 梵摩羅國 林淨寺 光有聖人領五百弟子說……子賢長者卽入無間”의 부분을 발췌 필사한 것으로 ‘子賢長者卽入無間’ 이하는 결락되었다. 광유성인 및 임정사와 관련된 설화에 해당하며, 1740년 간본과 그 내용은 동일하다.

3.1.3 국역필사본

『실나함월산지림사스적』은 1740년 간본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의 한글 고어체 국역본이다.

• 실나함월산지림사스적³²⁾

권수제: 실나함월산지림사스적

저자사항: 없음

판종: 필사본

장정: 선장 5針眼

장수: 21장

30) 동국대도서관, 청구기호 'D218.61 신231사'.

31) 『佛國寺誌外』(서울: 亞細亞文化史, 1983), 147-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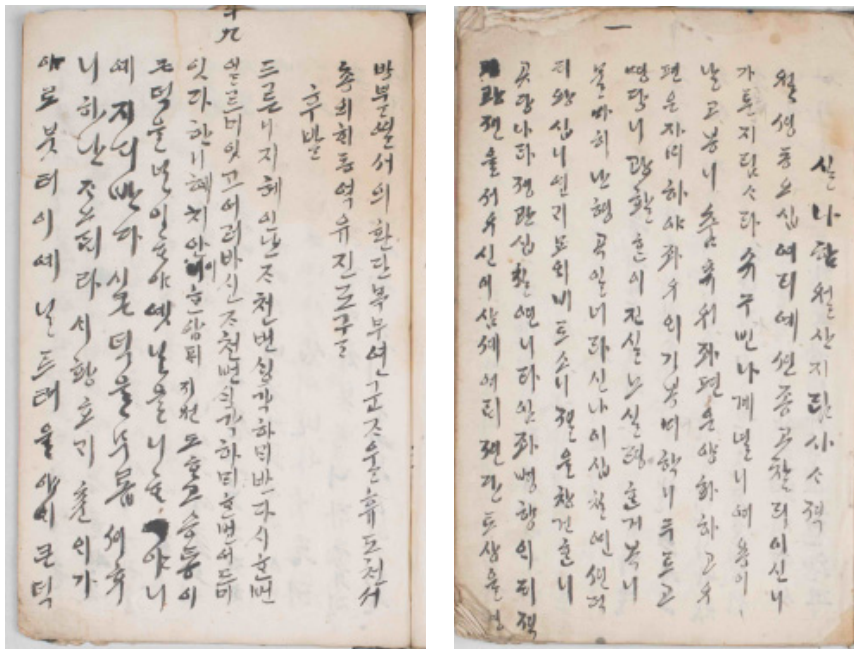
32) 계명대도서관, 청구기호 '이 294.369 신라함'. 등록번호: 125706.

책크기: 30.2×20.5cm, 字高: 26.5cm

행장수: 10行 15-18字(字數不定)

판구 및 어미: 없음

필사시기: [조선후기]



<사진 2> 기림사 소장 「실나함월산지림사소적」

이 국역필사본은 현재 기림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19세기의 고어체 한글 문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시기 기림사의 사명은 ‘지림사’로 칭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월인천강곡」 이하의 내용이 누락되는 등 완역이 아니고, 또한, 오역이 다수 찾아진다. 이 사적의 필사는 ‘기사삼월이십팔일종 책주인 계미생 이씨보덕심’이라 하여, 이씨가 기사년 3월 28일에 필사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적의 소유자인 이보덕심이 직접 번역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3.2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과 「別本祇林寺事蹟」

1740년 간본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은 1794년에 주지 理觀에 의해 개간되었다. 이 사적은 「韓國寺刹全書」에 수록되었지만, 그 저본이나 간행본은 미상이다. 이 개간본은 사찰에 구관이 있었지만 글자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많아지고, 그 글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주지 이관이 사적을 산삭하고

새롭게 하여 오랫동안 전할 것을 목적으로 개간하였다.³³⁾ 이관이 사적의 개간을 주관하였지만 찬자는 확인되지 않고, ‘上之卽祚十八年甲寅三月日 改刊’이라 하여 정조 18년(1794)에 개간된 시기만이 확인된다. 이 사적의 체제와 내용은 장을 달리하여 상술하지만, 古牒에 의거하여 광유화상과 林淨寺가 현재의 기림사라는 점을 간략히 언급한 점은 1740년 간본과 다른 특징이다.

『別本祇林寺事蹟』은 찬자나 간행시기 등이 미상이다. 이 별본의 사적 역시 『韓國寺刹全書』에 수록되었지만, 그 저본이나 간행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권상로는 이 사적의 말미에 별본 사적을 얻어 다른 날 참고하기 위하여 함께 기록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 별본 사적은 1740년 간본과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일부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는데, 1740년 간본의 서명인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에 대하여, ‘矩矩吒 鷄也 飯那 林也 舍月勢羅 山也 藪 祇也 飯那 林也 僧伽摩羅 寺也 事實’이라 하여, 산스크리트어 음사와 한자 훈을 병기하였다.³⁴⁾ 또한, 1740년 간본의 문말에 ‘勝地五處讚’이라 하여, 기림사 일원의 승지로 기림사, 용담, 계족암, 골굴, 천태산의 다섯 곳에 대한 찬문이 있는데, 이 별본 사적에서는 ‘古蹟五處讚’이라 하였고, 기림사, 용연, 계족산, 골굴, 천태산으로 讚題가 다소 다르며, 더 나아가 찬문의 내용도 상이하다. 이 사적의 체제와 내용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祇林寺事蹟』의 체제와 내용

『祇林寺事蹟』은 다수의 판본과 필사본이 있지만 동일 내용을 가진 판본과 필사본을 제외하면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1740년 간본>, <별본 사적>, <1794년 개간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祇林寺事蹟』의 구성과 내용 비교

연번	1740년 간본	별본 사적	1794년 개간본	비고
1	-	-	신라 불교 수용	
2	사명과 입지	사명과 입지	사명과 입지	
3	사원의 창건과 구성	사원의 창건과 구성	사원의 창건과 구성 / 사원연기	
4	사원 일대 형승	사원 일대 형승	사원 일대 형승	
5	사원연기: 古記 (광유성인 설화)	사원연기: 古記 (광유성인 설화)	-	
6	勝地 五處讚	古蹟 五處讚	-	
7	後跋	-	改刊 緣由	
8	卷末記文 및 刊行秩	-	-	

33) 권상로(1998), 298, “夫事蹟有舊版 字多漫漶 語甚浩汗 故時住持理觀 請刪而新之 以壽其傳.”

34) 권상로(1998), 300.

<표 2> 「祇林寺事蹟」의 구성과 내용은 <1740년 간본>과 <별본 사적>을 중심으로 <1794년 개간본>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연번 2의 사명과 입지에서는 기림사 월성 동쪽 50여 리에 위치한 선종 고찰 가람이며, 그 입지는 못 산봉우리가 주위를 감싼 명당으로 靈龜飲水의 형국에 해당함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어 연번 3의 사원의 창건과 구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사원의 창건은 신라 제27대 선덕대왕 12년(643)에 始創하였다고 하여 3본 모두 동일하게 기술하였지만, 창건 연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 ① 1740년,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新羅二十七善德大王之十二年癸卯始創是寺 (중략) 此祇林未兆之前 又不是前佛時伽藍之墟也哉.”³⁵⁾
- ② 미상, 「別本祇林寺事蹟」, “始創卽新羅第二十七善德大王之十二年癸卯 唐貞觀十七年也 古林淨寺 改名祇林也 (중략) 此祇林未兆之前 又不是前佛時伽藍之墟也哉.”³⁶⁾
- ③ 1794년, 「改刊慶州含月山祇林寺蹟」, “新羅善德王十二年癸卯 始創是寺 (중략) 古牒有曰 光有聖人 設道場於林淨寺 率五百弟子 開法筵講玄教 乃使一比丘 遣之沙羅樹國 先請八綵女來 以汲茶水 且邀沙羅樹王 賜金罐 汲檀井 精修得道 往生極樂 林淨卽是祇林云”³⁷⁾

1740년 간본인 문일의 「祇林寺事蹟」에는 643년 창건 이외 광유화상과 임정사와 기림사와의 연기, 원효의 사명 개칭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전불시의 가람터라 하여 임정사가 기림사로 이어졌음을 암시하였다. 이에 비해 1794년 개간본은 광유화상 연기설화의 말미에 ‘林淨卽是祇林’이라 하여 그 연원을 적시하였다. 또한, 「별본사적」에서는 ‘古林淨寺 改名祇林也’라고 하여, 643년 창건과 임정사를 祇林寺로 개명한 것은 기록하였지만, 원효가 사명을 개칭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개명전의 祇林寺인 林淨寺가 林井寺로 본문에서 혼용되는 등 사료의 대교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은 사원의 전각이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며, 이를 도표로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은 기림사의 전각, 불상, 그리고 사찰 일원의 형승에 대해 3종 사적의 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740년 간본 「祇林寺事蹟」에는 대적광전을 비롯하여 정광여래사리각과 진남루의 기록이 처음 확인된다. 대적광전에는 도금한 삼세여래의 旃檀土像을 봉안하였는데, 1794년 개간 「祇林寺事蹟」에는 三世如來丈六金身이라고 하여 소조삼세여래 장육상으로 기술되었으며, <별본사적>에는 三尊梅檀土像으로 표현하여 삼세불과 삼존불의 용어 혼용이 있다. 개간본에는 聖壽殿이 있고 무량수전이 없으며, 또한 창건시에는 49개 방실의 규모였지만 세월이 오래되고 쇠퇴하여 堂名

35)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1983), 103과 106.

36) 權相老(1998), 306.

37) 權相老, 「退耕堂全書」 권2 (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8), 297.

과 寮號를 상고할 수 없다고 하여³⁸⁾ 전각의 규모와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祇林寺 전각, 불상, 형승

구분	1740년 간본	별본 사적	1794년 개간본	비고
전각	大寂光殿	大寂光殿	大寂光殿	
	藥師殿	藥師殿	藥師殿	
	五百羅漢殿	五百殿	五百羅漢殿	
	定光如來舍利閣(三層殿)	定光如來舍利藏閣(三層殿)	定光如來舍利所奉(三層殿)	
	無量壽殿	無量壽殿	聖壽殿	
	鎮南樓	鎮南樓	鎮南樓	
불상	三世如來 梅檀土像	三尊梅檀土像	三世如來丈六金身	
	藥師像, 四天王像, 沙羅王幀	藥師三尊像, 四天王像, 沙羅樹王幀, 五百羅漢像	四天王像, 沙羅樹王幀, 五百羅漢像	
사찰 경내	五色花(優曇波羅花)	五色優曇波羅, 五種樹	五色花(優曇波羅花), 五種樹	
	五種水	-	五味水	
주변 형승	龍淵, 鷄足山, 天台山	方丈深潭, 鷄足山, 天台山, 赤城, 骨窟	方丈龍潭, 天台(赤城), 骨窟, 川洞의 白石	

사찰 경내에는 五色花와 五種水가 있었는데, 별본사적에는 五種水가 없고, 1740년 간본에는 五種樹가 없다. 또한, 주변 형승에 대해서도 龍淵, 鷄足山, 天台山을 제시한 것은 같지만, <1740년 간본>과 <개간사적>에는 천태산에 적성과 골굴이 있다고 하였고, <별본사적>은 천태산 외에 赤城과 骨窟이 있는 것으로 달리 서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림사 사적은 18세기에 간행된 3종이 내용상 대부분 일치하지만 개간본에서는 용어의 혼용이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점도 확인된다. 이는 간행 시기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기림사의 사원 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이동의 대략을 언급하였지만 향후 시대적 변천에 따른 차이는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위의 <표 2> 「祇林寺事蹟」의 사원 연기설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740년 간본>과 <별본 사적>은 寺中の 「古記」를 인용하여 광유성인과 임정사, 사라대왕과 왕비, 안락국왕자의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를 <1740년 간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고 그 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祇林寺事蹟」 소재 광유성인 연기설화 내용³⁹⁾

- ① 범마라국 임정사 광유성인이 오백제자를 거느리고 중생 제도

38) 權相老, 『改刊慶州舍月山祇林寺蹟』, 『退耕堂全書』 권2 (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8), 297. “是寺之創 爲四十九房之多 世遠人亡 漸之頽圯 堂名寮號 今不可攷.”

39) 「祇林寺事蹟」, 『佛國寺誌(外)』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112-134.

- ② 서천국 사라수대왕은 聖王으로 정법치국, 無上道를 구함
- ③ 광유성인이 사라수대왕의 선정을 듣고 승열바라문비구를 보내 채녀 요청, 사라수대왕은 408부인 가운데 적임자를 뽑아 팔채녀를 보냄, 팔채녀의 梅檀井汲水 및 無上道 수행
- ④ 광유성인 승열비구를 보내 사라수대왕을 유나로 초청, 원앙부인과 함께 임정사로 향함
- ⑤ 임정사행 중도에 원앙부인의 임신, 죽림국 자현장자가에 노비로 매매
- ⑥ 태아명 남아는 安樂國, 여아는 孝養으로 명명후 이별
- ⑦ 원앙부인이 사라수왕에게 왕생계 전수: 아미타불, 極樂蓮花生 一時成佛道
- ⑧ 사라수왕 임정사에서 왕생계 수행정진
- ⑨ 원앙부인이 안락국을 출산, 안락국이 7세에 부친 사라왕을 찾아 도주, 부인은 죽임을 당함
- ⑩ 안락국이 사라수왕과 임정사에서 상봉, 사라수왕의 설득으로 모친처로 돌아와 극락왕생을 빕, 원앙부인, 사라수왕, 안락국은 극락왕생함
- ⑪ 광유성인은 석가모니불, 사라수왕은 아미타불, 원앙부인은 관세음보살, 승열바라문비구는 문수보살, 안락국은 대세지보살, 팔채녀는 팔대보살, 오백제자는 오백나한, 자현장자는 무간지옥에 빠짐. 이상의 사례는 여러 경전에 있고 대성의 응화임.

이상은 「祇林寺事蹟」에 소개된 내용은 광유화상으로 응화한 석가불을 비롯한 제보살의 응화사적이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의 협시가 되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신앙이 강조되었다. 또한, 문수보살, 나한, 8대 보살, 승열비구 등이 언급되었다. 1794년, 「改刊慶州舍月山祇林寺蹟」에는 “古牒有曰 光有聖人 設道場於林淨寺 率五百弟子 開法筵講玄教 乃使一比丘 遣之沙羅樹國 先請八綵女來 以汲茶水 且邀沙羅樹王 賜金罐 汲檀井 精修得道 往生極樂 林淨即是祇林云”⁴⁰⁾이라 하여, 광유성인이 임정사에 도량을 설치하고, 오백제자를 인솔하여 법연을 펴고 현교를 강설하였다. 이어 한 비구를 사라수국에 보내어 먼저 8채녀가 오도록 청하여, 茶水を 길도록 하였다. 뒤에 사라수왕을 맞아 금관을 내리고 단정을 길으면서 수행하여 득도하고 왕생 극락하였다. 또한, 임정사가 곧 기림사라고 하였다. 이렇듯 <1740년 간본 사적>의 광유성인 설화의 많은 분량을 간략히 요약하는데 그쳤지만, 내용은 <1740년 간본>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이 내용은 사원의 창건과 구성에 이어 사원 연기를 기술하여, 다른 본들과 그 서술의 차례도 다르다.

한편 이를 <별본 사적>과 비교하여 보면, 광유화상, 사라수대왕, 안락국은 그 명칭이 같지만, <1740년 간본>의 鴛鴦夫人과 子賢長者는, 각각 圓光夫人과 自現長者로 달리 서술되었다. 또한, <1740년 간본>은 광유성인이 오백제자를 거느리고 대소승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한편 ‘汲水奉茶’를 위해 사라수대왕에게 八姝女를 요청하였다면, <별본사적>은 광유성인이 오백제자를 거느리고 ‘花田修理’를 恒規로 하면서, 사라수대왕에게 八女를 구하여 화전을 가꾸도록 하였다. 또한,

40) 權相老, 「退耕堂全書」 권2 (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8), 297.

안락국의 고난과 그의 부친 사라수왕과의 상봉 과정이 서로 다르게 묘사되었고, 왕생계와 극락왕생 등이 생략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권수제의 일부는 산스크리트어의 한자음을 제시하고 이어 그 한자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를 병기하여 <1740년 간본>과 다른 점이 특징적이다.⁴¹⁾ 18세기 당시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자료이다.

다음은 위의 <표 2> 「祇林寺事蹟」의 '勝地 五處讚'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740년 간본>은 祇林寺, 龍潭, 鷄足菴, 骨窟, 天台山の 다섯 곳을, 「별본사적」은 祇林寺, 龍淵, 鷄足山, 骨窟, 天台山の 다섯 곳의 승경에 대해 기록하였다. <별본사적>은 제목에서 龍淵, 鷄足山으로 다르며, 그 찬문의 내용도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발문 등 권말기문을 살펴보면, <1740년 간본>에 있는 後跋이나 권말기문이 다른 2종에는 생략되었다. 이는 「한국사찰전서」에 수록하기 위하여 대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원본의 누락인지는 분명치 않다. 後跋에는 “歲崇禎紀元後黃狗(1646)大簇上浣沙門方訶婆給窮食東賓聞偈兼跋”이라 하여, 東賓 聞偈이 사적 및 발문을 썼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부족했던 3본 사적과 사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祇林寺의 사명 등 창건과 역사의 전반을 재검토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코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祇林寺의 사적은 祇林寺가 신라 선덕여왕대인 643년에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사찰의 창건과 전개를 알 수 있는 현전하는 사료의 대부분은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祇林寺 「寺誌」 자료로는 조선후기 祇林寺의 역사와 전개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자료 「祇林寺重創記」 이외에 1740년 간본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1794년에 개간된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別本祇林寺事蹟」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불국사지」에 수록된 종도리 墨書記를 비롯한 殿閣 修建記 9종, 단월 및 공덕기 15종, 불교신앙과 지역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기림사의 사지는 다른 사찰의 사적과 달리 비교적 다수 전존하며, 3종으로 구분되며, 간본과 필사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740년에 간행된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은 그 인출본이 기림사 등 5개 소장처, 필사본이 동국대도서관 등 2개 소장처, 국역필사본이 기림사에 소장되어 있다. 1794년에 개간된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과 「別本祇林寺事蹟」은 권상로의 「한국사찰전서」에만 수록되어 있고, 그 판본이나 저본은 미상이다. 이상의 제본에 대해 서지조사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祇林寺事蹟」의 체제와 내용에 대해서 <1740년 간본>, <별본 사적>, <1794년 개간본>으로 구분

41) 權相老(1998), 300-306.

하여 살펴보았다. 사적의 구성은 사명과 입지, 사원의 창건과 구성, 사원 일대 형승, 사원연기: 古記(광유성인 설화), 勝地 五處讚, 後跋, 卷末記文 및 刊行秩의 상호 수록 여부를 정리하였다. 「기림사사적」은 18세기에 간행된 3종이 내용상 대부분 일치하지만 개간본에서는 용어의 혼용이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점도 확인된다. 이는 간행 시기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기림사의 사원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事蹟 異同을 대략 언급하였지만 향후 시대적 변천에 따른 이동은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경주 祇林寺의 위상이나 역사, 더 나아가 기림사의 소장 문화재에 대한 이해나 편년 등을 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추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21-338'.

계명대도서관. 청구기호 '이 294.369 기림사'. 등록번호: 130016.

계명대도서관. 청구기호 '이 294.369 신라함'. 등록번호: 125706.

동국대도서관. 청구기호 'D218.61 신231c2'.

동국대도서관. 청구기호 'D218.61 신231c'.

영남대도서관. 청구기호 '古ㄷ-226.911 기림사'.

목담유물자료관. 미정리 유물자료관 소장.

「佛國寺誌(外)」.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權相老. 「退耕堂全書」 권2. 서울: 梨花文化出版社, 1998.

2. 단행본 및 논문

文化財管理局. 「祇林寺비로자나불복장전적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8.

慶州市. 「祇林寺 大寂光殿 解體實測調査報告書」. 경주: 경주시, 1997.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21플러스 전통기록물 분석·활용·아카이빙 전문가 양성사업팀. 「기림사 소장 文獻 분석 및 角筆·口訣자료의 기록문화」 자료집. 대구: 경북대학교, 2017.10.

南權熙. 「高麗時代記錄文化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한상길. 「祇林寺의 歷史와 思想」 「佛敎美術」. 서울: 東國大學校博物館, 1998.

